

엘리스의 이상한 도시

August, 2020 | 윤혜정 디렉터, 손안나 에디터



엘름그린 & 드라그셋의 1961년 1960년
 City in the Sky (1961), 2018, Stainless steel,
 steel, aluminum acrylic (ABS), LED light,
 400x500x220cm. Courtesy of the artist,
 Kuka Gallery, Massimo De Carlo, and Perdon.
 ©2018 BAZAAR. 전시 일정: 파리에르스 아트스페이스, 인천
 시간: 19:00~

엘리스의 이상한 도시

프린팅: 마천루의 세상 <시티 인 더 스카이>에서 발견한 희망의 아날로그

서울에 대한 첫 기억은, 많은 지방 출신들이 그렇듯, 서울에 앞 다투어 밀려들었다. 역으로 친친히 건립하던 기자 안에서 우람하게 보이던 빌딩은 실제 보니 훨씬 더 기세등등했다. 얼마나 많은 (나 같은) 철출들이 이 자리에서 서울 입성의 압력과 불안에 만기하며 저마다의 성공을 꿈꾸었을까 상상했다. 두 번째 기억은 감상에 늘어선 아파트였다. 1994년이던 일대가 재개발되기 전이었지만, 어렸을 때 내가 자란 마을 열낙동강에 이런 아파트가 서 있을 리 만무했기에 꽤 신선한 풍경이었다. 20여 년 후, 한국 초고속 빌딩의 기록을 갱신한 잠실의 로얄 모양 빌딩과 근처 도로 양옆으로 위풍당당하게 뻗은 아파트 단지를 걸으면서 나는 서울이 또 다른 얼굴을 꼭 그려냈다.

북유럽 출신의 작가 듀오 엘름그린 & 드라그셋(Elmgreen & Dragset)의 작품 <시티 인 더 스카이>(City in the Sky)(2019)는 서울을 향한 세 번째 기억, 태해민과의 우거진 빌딩숲을 상기시켰다. 내가 아는 재발 출신의 어느 연예인은 자신에게 이 길은 '유명 배우'가 되겠다고 다짐하게 만든 '성지'라고 백했지만, 내겐 그만큼 야심도 없었을뿐더러 오히려 주눅 들었던 것 같다. 이 '동경자본의 화합'이 선사한 언캐니(uncanny)한 감정은, 내가 두 발을 딛고 선 땅이 실제로 느껴지 않을 정도로 강력했다. 출구 없는 일상의 디스트로피아를 그린 근미래 SF 영화 버금가는 푸미전포함, 기묘한 율령처럼, 이상한 무력감에 함도되어 길을 잃었던 당시 기억은 <시티 인 더 스카이>가 표현하는 바와 일치한다.

지난 2019년 아트페어 홍콩 인카운터스 세터에서 선보인 <시티 인 더 스카이>는 홍콩, 상하이, 런던 등 강력한 금융 중심지로 부상한 대도시, 특히 마천루에서 열광하는 작품이다. 고층 빌딩으로 구성된 천하의 도시를 설계하고 뒤집은 이 작업은 결과적으로 도시 하나가 통째로 한강에 매달린 형국이다. 이들이 전략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매끈하고 빈틈없는 매달린 소재는 각 도시들이 꿈은 화려한 야망을 대변하고, 서로 높이를 겨누는 건물들이 그려낸 뒤집힌 스카이라인은 야망이 이렇듯이나 주객이 전도된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듯했다. 작가들은 가상의 도시라 밝혔고 현지 언론들은 흥분 흥분했다고 보도했지만, 이 도시는 누군가가 독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일상에 만연한 사회적 선입견과 권력화된 문화구조에 이의를 제기해온 엘름그린 & 드라그셋은 사실적이며 비현실적인 기이한 세상을 창조하는 데 능한 현대미술가인 데다, 실사

이것이 서울을 재현한 풍경이었다 한들 하등 이상하지 않을 때문이다.

엘름그린 & 드라그셋의 작품은 보통 매우 직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시티 인 더 스카이>를 속속들이 관찰하는 데는 꽤 긴 시간을 할애했어야 했다. 대도시라면 흔히 볼 법한 날씨는 빌딩들이 저마다의 권력, 힘, 속량 등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들 건물의 꼭대기에는 빨강거나 하얀 물빛이 각기 다른 리듬으로 깜빡이고 있다. 특별한 것 없는 그 작은 불빛은 뒤집힌 세상에서 시한폭탄 타이머처럼 아슬아슬하고, 매달린 건물들은 하늘에서 못지않게 아슬아슬한 오메가스프링 양 위함적이다. 물론 아트마릴 룸에서 보이는 달리 작품 바로 아래에서(실제 이 작품은 엄청난 무게를 자랑한다) 건물들의 수직적 존재감을 느낄 수 없다는 건 두고두고 아쉽지만, 그 위태롭고 불안에서 생겨나는 이상적인 도시에 대한 의문과 현대도시의 존재 조건에 대한 의심을 끌어내어 기어는 충분하다.

'하늘의 도시'라는 제목은 '하늘에 닿은 길을 뜻하는 마천루(摩天樓)'를 자연스레 연상시킨다. 마천루가 공간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실용적 목적으로 생겨난 거대고를 생각하지만, 그 근원에는 하늘 혹은 신에 가 닿고자 하는 인류의 오랜 욕망이 도시된다. 고대 로마제국에도 10층 높이의 건물들이 존재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신라 신덕이 왕 시대에 만든 황룡사 목탑이 수백 년 동안 초고층 건물의 기록을 움켜쥐고 있었다. 마천루가 신의 존재를 끌어낸 건 근대 이후였다. 작곡가 존 윌던 카렌타가 무리 1926년에 만든 발레 음악 <마천루>는 신성취형 척추 전립종처럼 생겨난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현대 미국인들의 생활을 묘사한 작품으로 일러져 있다. 게이 루퍼와 캐롤리나 날이 주연한 1949년 영화 <마천루>는 어느 한층 건축가를 통해 미국식 이상주의와 자본주의를 격니려하게 묘사했다. 영국 작가 이이아 울리암의 영상 <플레이 타임>은 마천루의 정공을 관음적으로 들여다보는 영감로 시작하는데, 예술 세계에서 그의 은의 역할과 저자를 갖는 본 작품에서 마천루라는 요소는 질문조차 필요 없이 발전을 유발하며 끝나는 세계의 끝을 주조하게 대변한다.

민약 엘름그린 & 드라그셋이 '시티 인 더 월드' 같은 안전한 작품을 만들었다면 나는 굳이 뒤회돌과 함께 인현공할 근처 피라다이스 아트스페이스까지 찾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야망 높은 이들이 창작라도 어울리지 않는다. 엘름그린 & 드라그셋



2019년 국제현대미술제 열린 헬름그린 & 드라그렛의 작업 <Adaptation> 사진: 안현호, OZART 제공, 국제현대미술제

은 늘 의외의 장소에 작품을 배치하거나, 본래 기능을 거세하거나, 난감한 상황을 연출해왔다. 대저택 수영장 형상의 조지(〈반 고흐의 귀〉(2016))를 뉴욕 옥펠리엔트 앞에 세우고, 텍사스 시막에 입구 없는 프라다 숍(〈프라다 밀파〉(2005))을 만들고, 아무것도 안내하지 않는 교통 표지판(〈어택테이션〉(2019))을 고안하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막힌 바(〈루프트 바〉(2018))를 설치했다. 급기야 허구의 갤러리 캐비닛이 수영장에 죽은 채 떠있는 모습까지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왔는데, 이들의 날 선 아이디어는 예술시장의 숭고함을 뒤엎고 세상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목소리로 공명했다. 2009년 페니스 비엔날레 북유립 & 덴마크 국가관에서 선 보인 이 작업은 특별상을 수상했다.

"뭔가 이상한 느낌으로 여기가 어디일까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의심할 때마다요. 예술이 가장 잘

가능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헬름그린 & 드라그렛은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전무라 믿는 인식 자체에 균열을 낸다. 예술가는 일상의 예술적 속성을 드러내며, 그중 미술가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렌즈를 제시한다면, 헬름그린 & 드라그렛은 예술가의 속성과 미술가의 미덕을 매우 동시대적인 감각으로 드러냈다. 이들은 "새로운 걸 발명하거나 추상화하기보다는 현실을 벗어나지 않은 채 친숙한 대상을 재발견하도록 또 다른 '실제'를 만들어내길 더 즐긴다."

"새로운 걸 발명하거나 추상화하기보다는 현실을 벗어나지 않은 채 친숙한 대상을 재발견하도록 또 다른 '실제'를 만들어내길 더 즐긴다."

"미술 관련한 어떤 정규 교육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한 아이추이로 살 수 있다"던 이 문예적 듀오는 전 세계 대중관계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중적인 스타 예술가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그 와중에도 박물관에 있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화이트루브 형태의 추모비는 강경파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고 <프라다 밀파>는 홍알 세례를 받기 일수였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자신들의 작품이 제대로 작동하여 건강한 মানুষ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확인했다. "자리리 프라다를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많은 아티스트들은 대중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걸 두려워하지만 그런 생산적인 논쟁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조개 속의 이물질을 갈은 거예요."

The Confused라는 긴박을 내건 헬름그린 & 드라그렛의 왜곡된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보고, 느끼고, 의심하고, 사유하는 것이다. 인지부조화의 충격을 극복하고, 기이한 유희함을 즐기고, 두려움을 제거하다 보면, 어느새 이들이 숨겨둔 각성과 변화의 단서를 만나게 된다. 일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무력감을 실제처럼 체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이들의 작업은, 그래서 희망을 부를 것 아닐까 희망적이다. 현실의 내면 풍경을 사회학적, 심리적으로 그려내는 이들의 작품은 특유의 무대감을 안기지만, 동시에 세상이 실재로 규정하는 이런 상태가 결코 무용하지 않음을 역설한다. 작품이란 전시장이 아니라 관객의 머릿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으며, 그들의 작업 앞에서 유난히 무장해제되는 이유다.

<시티 인 더 스카이>는 오는 10월 4일까지 안전하게 선보일 것이다. OH MY CITY라는 테마 아래, 주요 작가들이 생산한 현대미술에 대한 미술적, 인문학적인 탐론도 풍부하니 더할 나위 없다. 헬름그린 & 드라그렛의 작품이 이토록 절감은 방식으로 관객을 만난다는 사실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제 문예에만 전념하던 지난 몇 달간의 관습을 거슬러 오랜만의 관행적으로 활기를 얻었다. 강변북로를 내달릴 때마다 사진이 머플러 단 곳, 길과 빌딩 가격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원일이라 향치는 술한 드라마가 공명해왔기 때문이다. <시티 인 더 스카이>나 여기 현실 도시나, 전채와 가며, 현실과 비현실, 진실과 거짓의 이음매만으로 가득한 '의미의 창고'임을 인정할 순간, 건축가 <그라>의 작가로 신영이 <서울 이야기>(현실문화에서 쓴 바 "서울을(도시를) 산다는 건 세계를 사는 것이다"라는 문장이 비로소 이해되었다.

제가 이들의 목적지는 예술의 결과물로서의 '이상한 도시'가 라필 이사 준비를 하며 유명과 현실 사이에서 태연 격나라하게 확인해야 했던 나라는 도시인의 표피에서 자유로워질 현실적 희망을 전사했다는 건 꽤 미심쩍은 시간이다. ■

필/윤재원(국제현대미술제 디렉터) & 최지연(소신나)



The Observer (Baptist), 2019 Epoxy Resin, Aluminum, Steel, Fabric, 163x144x90cm, Courtesy of Young-Tak Kim Seoul <2019(19)> 전시 장소: 유네스코 미술스튜디오, 인천 아트 비엔날레



OH MY CITY (19) <2019(19)> 전시 장소: 유네스코 미술스튜디오, 인천 아트 비엔날레